

1930년3월22일4면1단

懷疑主義 批判(六)

-思想과 生活의 方法論-

裴相河

그네들의 生活이 自然 그것이 엇든 까닭이다. 그럼으로 自然과 씨름하며 自然을 模倣하려는 그네들의 生活에서 더욱 새로운 Humarisch한 思想이 생겨날 餘裕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다. 太陽은 無生物이 아니고 그네들의 驚異的 崇拜의 人格的 對象이 서엇었다. 山 에는 山精이 잇고 물에는 水精이 잇고 草木에는 林精이 살고 잇스며 星辰에는 제 各其神들이 支配하고 잇다는 素朴한 獨斷的 信仰 狀態에서 한 거름도 나아가지 못함이 그네들의 思想이 엇었다. 그러나 머지 안허서 太陽은 神이 안이다. 太陽은 灼熱한 土塊이다 라는 主張으로 말미암아 焚殺을 當했다는 어느 哲學家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心的 態度는)언제까지든지 素朴한 獨斷에만 멈을을 수 업슴이 自明하다. 太陽을 神이라함은 臆口이 아닐까? 太陽은 뜨거운 것이니 靈魂을 가진 人格的 存在라기 보담 숫불 가티 아모런 精氣도 업는 無生物이라함이 正當치나 안홀까?

山과 물과 草木 등은 모두가 自然이니 自然을 人格化함은 獨斷的 推測이나 안일까? -이와 가티 우리의 思惟는 原始的 獨斷에서 覺醒的 懷疑期로 나아가지 안홀 수 업게 된다. 이는 吾人의 心的 狀態의 拒絕하랴야 拒絕 할 수 업는 必然的 要求일 것 잣다. 萬若 그러하면 우리는 어셔한 理由로써 그것을 『必然的 要求』라고 斷定 할 수 잇슬까?

便宜 上 以上을 表示 할 것 가트면

Dogma-原始的 These-(正)

Skepsis 覺醒的 Antithese-(反)

X-完成的 Synthese-(合)

라 할 수 잇슬 것 잣다. 正-反=합이 必然的 過程에서 生킨다 할 것 가트면 Dogma- Skepsis-X 卽 素朴한 原始的 獨斷에서 洗練된 覺醒的 懷疑로 推移함도 또한 必然的 過程에서 生김일 것이다. 그러면 이 必然的 過程은 엇더한 根據에 말미암음인가? 다시 말할 것 가트면 吾人의 必然狀態가 오래

原始的 獨斷에만 머무르지 못하고 覺醒的 懷疑를 하지 안하면 아니되는 心的 原因은 무엇일까? 換言하면 懷疑主義 發生의 『主觀的 原因』은 무엇인가?

以上을 解決하기 爲하여 懷疑主義 發生原因은

- (一) 主觀的 原因(心的 原因)
- (二) 客觀的 原因(權威의 原因)

으로 논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 (一) 主觀的 原因(心的 原因)

原始的 獨斷에서 覺醒的 懷疑期로 나아가지 안하면 안이 됨이 吾人의 心的 狀態의 必然的要求이라 할 것 가트면 이 『必然的 要求』란 『必然性』은 어셔 한 心的 根據에 依因함일가?-

이를 解決키 爲하여 吾人은 吾人의 意欲態度엔

- (가) 永遠을 憧憬하는 欲望
- (나) 變化를 要求하는 欲望

의 가장 原始的인 두 가지 欲望이 있다는 原理를 前提하지 안하면 안이 되 겠다. 永遠을 憧憬하는 欲望은 다시 말할 것 가트면 建設을 目的삼는 欲望이 요, 變化를 要求하는 欲望은 破壞를 前提삼는 欲望이다. 永遠을 憧憬하는 欲望 卽 建設目的삼는 欲望의 對象은 언제든지 『全的』이지만은 變化를 要求하 는 欲望 卽 破壞를 前提삼는 欲望의 對象은 『全的』或은 『部分的』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러냐하면 前者는 언제든지 『永遠的인 것』·『不變的인 것』·『唯一無 二한 것』·『完全한 것』 그럼으로 『全的인 것』(部分은 完全치 못하다)을 對象 삼은 卞답이며 候者는 어셔한 權威를 變更하려 할 쎄 어셔한 權威를 破壞하 려 할 쎄 勿論 그 權威의 全部를 卽 『全的』으로 破壞하는 境遇도 또한 잇슬 수가 잇는 卞답이다. 이와 가티 永遠을 憧憬하는 慾望과 變化를 要求하는 慾望은 原始的으로 相異하는 두 種類의 心的 態度와 가티 생각된다. 그러치만 은 더욱 갓가히 더욱 깊히 考察 할 것 가트면 그것은 表面的 相異에 지나 지 안는 것이요, 根本에 잇서서는 한 가지 原理의 兩端임을 卞다를 수 잇슬 것이다. 卽 한 가지 原理란 것은 『永遠을 憧憬하기 쎄문에 變化를 要求한다』 이다. 다시 말하자면 心的 狀態의 두 가지 欲望은 『建設을 目的함으로써 破壞를 前提삼는다』라는 한 가지 原理로써 統一 할 수 잇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永遠을 憧憬하는 欲望과 變化를 要求하는 欲望은 其實 『永遠을 憧憬하기 쎄문에 變化를 要求한다』라는 目的 關係的 意欲狀態의 兩端을 表示 할 쎄름 이다. 變化를 要求하지 아니치 못함은 永遠을 憧憬하기 쎄문이요, 永遠을 憧憬하자면은 『非求遠的인 것』의 淘汰 卽 變化를 要求하지 안할 수 업게 된다. 破壞는 敢爲치 안하면 안이 됨은 建設을 目的삼으려면은 『建設에 不當한 것

』의 拋棄 卽 破壞를 前提하지 안할 수 업게 된다.